

오피니언

光日春秋

박범신



산악인들은 왜 명줄을 걸고 산에 오를까. 특히 7천, 8천이 넘는 고봉들은 직벽에 가까운 벼랑이 많은데다가...

재가할 수 있는 용기를 갖추어야 비로소 프로 등반가라 할 수 있다고 설파한 바 있다. 참으로 비장한 출정사가 아닐 수 없다.

산악인들이 고풍에 오르는 힘

산악인들이 고산에 올라서 돈을 벌거나 이름을 드높이는 것은 극히 소수가 누리는 부가가치일 뿐이다. 대부분의 산악인들은 자기 명줄을 걸고 정상에 올라도 현실적인 어떤 보람도 거두지 못한다.

그는 빙벽에 붙는 순간 습관과 권태로 뿔 뿔인 안락으로부터 철저히 분리된다. 그는 완벽한 단독자이고 모든 선택권을 전 절대적인 자유인이며 자신과 빙벽과의 관계만으로 승부하는 실존적 존재가 된다.

인간 본연의 욕구와 맞닿아 있다. 일상의 삶은 어떠한가. 우리는 매순간 자유로운 존재로서 최선을 다하며 살고 있다고 느끼지만, 알고 보면 자본주의적 경쟁심이 부추기는 욕망과 알량한 수준의 안락을 추구할 뿐인 '습관으로서의 삶'을 살고 있다는 사실을 부정하기 어렵다.

의 목숨값이 기증이다. 그러나 이성애를 둘러싼 감각이 최고조에 이를 것이고, 합리성과 구조에 둘러 있던 야성이 빙벽으로 터져나올 것이다.

시설

수도권 규제 완화 강행 '지방' 죽일건가

정부가 검토하고 있는 25개 첨단업종의 수도권 입지 규제를 완화하면 비수도권의 성장폭이 2011년까지 50% 정도 축소될 것이라고 한다. 서울과 인천, 경기도를 제외한 비수도권 13개 시·도지사

에서 벗어나지 못하게 된다. 광주·전남의 첨단산업은 매우 열약하다. 25개 업종의 사업체 및 종사자 수, 유형 고정자산, 생산액, 부가가치 등의 전국 비율이 광주 1.1~2.3%, 전남 0.3~0.6%에 불과했다.

독자투고 환영합니다. 이름,주소,전화번호를 써주시시오 501-711 광주광역시 동구 금남로 2가 20-2 광주일보 오피니언 담당자/전화 062-2200-628/팩스 062-222-4918/이메일 opinion@kwangju.co.kr

Kisti의 과학향기

(한국과학기술정보연구원)

이재인



“주형아, 네 나이가 몇인데 번기에 물을 자주 흘려보내면서 장난이니? 얼른 나오지 못해?”

이 마치 과학실인 것 같아요. 해해~ “알고 보면 생활 구석구석 과학이 자리 잡고 있지? 중세시대에는 걸거리에 분뇨 구덩이가 있었기 때문에 전염병이 생겼어. 수세기 번기가 발명되었지만

번기를 알면 과학이 보인다

어지는 현상을 말한다. 이런 식으로 물이 번기 속으로 내려갈 때 복반구에서 오른쪽으로 돌면서 내려가고, 반대로 남반구에서는 왼쪽으로 돌면서 내려간다는 원리이다.”

한 진공 곡관이 숨어 있다. 물의 높이에 의해 기압차가 발생하여 물이 위쪽으로 흐르게 하는 것이지. 사이펀 관이 물 표면보다 아래에 있으면 수면에 작용하는 대기압으로 인해 관 안으로 밀려 올라가. 물이 굽은 곳 돌아서 다른 쪽 관으로 통과할 때 관의 압력 때문에 남아있는 물은 관을 따라 계속 흐르며, 그러다가 주형이가 번기 벨브를 누르면 번기물탱크 속 물이 밀려 내려와 곡관을 넘게 되고 번기 속 물이 빨려 내려가게 되지. 그리고는 다시 곡관 높이까지만 물이 차게 된단다.”

기고

한우석



최근 건설사 관계자들의 토지공사 방문이 많이 늘었다. 오랜만에 만난 반가운 얼굴들이었지만, 한 눈에 수심이 가득함을 느낄 수 있었다.

공기업을 또 다른 사회적 책임 '경제 살리기'

않았다. 게다가 행복도시와 혁신도시 등지에서 투자자금의 회수가 늦어짐으로 인한 토지공사의 재무상태 악화는 나날 더욱 고민에 빠졌다.

이 바로 그것이다. 특히 토공에서 건설사 보유토지를 3조원까지 매입하고, 연체중인 공동택지의 계약해제를 2조원까지 허용하면 건설사의 자금난 해소에 다소간 물꼬가 트일 것으로 예상된다.

인터넷 베키는 속제는 표절... 가점지도 절실

초등학교 다니는 아이가 속제를 한다며 인터넷을 뒤지고 있었다. 속제 내용이 우리나라 독립운동가의 업적과 소감을 써오라고 한 내용이었는데 아이는 책을 펼쳐보기보다는 당장 찾아 쉬운 인터넷을 이용하는 종이였다.

이 들었다. 독립운동가의 행적이야 누가 쓰더라도 내용이 다 비슷비슷할 수 있지만 자신의 느낌을 쓰는 소감문마저 베끼니 표절된 국화빵 속제가 생산되는 현실이었다.

無 等 鼓

의한 부족에 따른 국가 부도사태를 막기 위해 IMF가 다시 부활하고 있다. IMF를 공식 졸업한 것은 2001년 8월 23일이다. 당시 전환한 한은 총재는 차입금 잔액 1억4천만 달러를 최종 상환하는 서류에 결재하고 서명한 황기구를 화폐금융박물관에 남겼다.

자란 27일 국회 시장연설에서 “국제금융을 받아야 했던 10년 전과는 상황이 판이하다”고 단언했다. 그러나 분명히 다른 한 가지는 경제 위기를 극복하려는 사회적 합의가 부족하다는 점이다.

광日日報 The Kwangju Ilbo. 회장 許幸祐, 사장·발행·편집·인쇄인 金禎榮, 논설실장 金東永, 편집국장 申港樂. 대표전화 2200-551, 222-8111